

익산, 독서로 가을 물들인다

익산시의회, 제255회 임시회 개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 등 42건 안건 심의

익산시의회(의장 최종오)가 16일부터 27일까지 12일간의 일정으로 제255회 임시회를 갖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3년 주요업무 결산보고, 익산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을 비롯한 42건의 안건 심의와 상임위원회별 주요 사업지 현장점검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중 의안발의 제·개정 조례안은 11건으로, △익산시 폭염·폭우·폭설 피해 예방 조례안(김진규 의원), △익산시 정신건강 위기 대응 체계구축에 관한 조례안(박철원 의원), △익산시 공공개발사업 편입지역 주민 지원 조례안(소길영 의원) 등이다.

최종오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임시회에서는 주요업무를 결산하면서

성과와 반성을 공유하고 발전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라면서 "성과에 대해서는 아낌없이 격려해주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진단을 통해 발전적인 해법을 제시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익산시의회는 올해 사업들이 민생과 지역경제에 큰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꼼꼼히 점검하고, 살림살이를 알뜰하게 챙기겠다"고 전했다.

이날 5분 자유발언에서는 손진영 의원이 '익산시 생활임금 조례'에 따라 생활임금을 적용받지 못한 근로자를 전면 재조사하고 그 대상을 명확히 적용할 것을 촉구했다.

/익산=이재춘기자

모현도서관 독서문화 기반 구축 사업 공로 인정받아 장관상 수상

독서의 계절 가을을 맞아 익산시가 책 읽는 문화도시의 면모를 뽐내고 있다.

익산시는 지난 13~14일 유천생태습지공원 일원서 열린 2023 익산 북 페스티벌이 큰 호응 속에 마무리됐다고 16일 밝혔다.



익산시는 지난 13~14일 유천생태습지공원 일원서 열린 2023 익산 북 페스티벌이 큰 호응 속에 마무리됐다고 16일 밝혔다.

'시시(A詩)각각 책 속 세상'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는 책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 인공지와 책의 공존을 함께 모색해보는 장이 됐다. 참가자들은 유천도서관을 품은 유천생태습지공원의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배경 삼아 책을 읽으며 깊어가는 가을을 만끽했다.

북토크 '취중책담' 참가자들은 캠핑 의자와 테이블 조명으로 꾸며진 탁트인 공간에서 무알콜 음료를 마시며 책과 함께 저녁 낭만을 즐겼다. 특히 대화형 인공지능(AI) 서비스 챗(Chat)GPT를 활용한 백업장은 이번 축제에 모미를 더했다.

행사장 곳곳에서는 △소속 비밀책을 찾아라 △책만들기 △자개공예 △타로 △인생네트 △캐리커처 △어린이 뮤지컬 피터팬 △이리오습 플라마켓 등 다양한 체험과 도서 할인 판매가 이뤄져 축제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었다.

책 읽는 문화도시를 향해 꾸준히 성장 가도를 달려온 익산시의 노력은 최근 틀어 더욱 빛을 발하고 있다.

실제 익산시 모현습지도서관은 지난 13일 2023 도서관 협력업무유공 시상식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지속적인 독서문화 기반 구축과 협력사업 추진에 대한 공로를 인정

받은 것이다.

지역 서점과의 상생을 위해 △지역 서점 인증제 △바로북 서비스 △다이로움 도서 구입 정책지원금 지원 등의 협력사업을 진행한 점이 좋은 평가를 얻었다. 초등학교·다함께 돌봄센터·공동육아나눔터 어린이 책읽기 사업 등 프로그램을 운영해 독서 사각지대와 교육 격차 해소에 기여한 성과도 부각됐다.

익산시가 전주수와 함께 전국 최초로 도서관 여행 메타버스 구축 사업을 추진한 점도 수상에 힘을 보탰다. 이는 익산이 자랑하는 지역 특색도서관을 전 세계 어디에서나 실감 나게 여행할 수 있도록 가상 공간을 마련하는 사업이다.

메타버스 공간에는 유천 생태도서관과 금마 한옥도서관의 실제 모습이 생동감 있게 구현된다. 독서동아리, 상호소통이 가능한 독서광장, 직접 자신만의 공간을 꾸며보는 실감 서재 등이

탑재될 예정이다. 시는 여기에 익산지역 서점을 입점시켜 도서 판매로 이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익산의 동네 서점까지 책을 빌려 볼 수 있는 '바로북 서비스'는 시민과 지역 서가의 민족을 동시에 이끌어내고 있다. 이용자들은 바로북 서비스를 통해 지난 1~7월에만 4277권을 빌려본 것으로 집계됐다. 덕분에 동네 서점에도 시민 발길이 이어지며 모처럼 활기를 띠고 있다.

시는 올해 바로북 서비스에 대한 예산을 늘리고 다이로움 도서 구매 정책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독서 문화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앞으로도 작가와의 만남, 북 토크, 독서 일일 강좌 등 다양한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지속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그동안 독서문화 발전을 위해 힘써 온 익산시의 노력이 열매로 드러나고 있는 것 같아 기쁘다"고 말했다. /익산=이재춘기자

군산시, 제1회 화학 안전주간 행사 추진

군산시는 화학사고로부터 안전한 군산 만들기를 위해 오는 24일부터 30일까지 군산대학교(홍릉문화원)에서 제1회 화학 안전주간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최되는 화학 안전주간 행사는 최근 잦은 화학사고 발생으로 인한 시민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실시된다.

또, 화학사고 대비·대응 태세를 알리고 민·관·산·학이 함께 화학사고로부터 안전한 군산을 만들기 위해 추진한 노력의 평가와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 관련 이차전지 제조에 수반되는 화학물질의 안전한 취급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해 준비됐다.

주요 행사내용은 기념식과 화학사고로 부터 안전한 군산 만들기 컨퍼런스, 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의 화학사고 예방 관리계획서의 주민고지 영상 시

사회, '이차전지의 이해 특강', 이차전지 특화단지 화학 안전대비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다.

연계 행사로는 군산대학교 생활과학 교실의 '생활 속 화학물질 안전교육'과, 전북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사람들의 '유해화학물질로부터 자유로운 학교생활'이라는 주제로 펼쳐진 교육자료 홍보와, 화학물질 취급사업장에 대한 자율점검 시행 재난대응 훈련 등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더불어 시 관내 화학물질 취급업소 정보와, 화학물질에 대한 일반상식 등 각종 자료, 비상시 대피소 등을 확인해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화학물질관리지도 앱 링크 문자를 송출, 많은 시민이 군산시 화학물질관리 지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군산=김판근기자

군산 주력산업 일자리 매칭데이 개최

이차전지 기업 등 군산 주력산업 기업의 인력난 개선

군산시는 16일 전북조선업도약센터가 군산고용복지플러스센터, 일자리정보센터와 협력해 군산지역 기업체와 도내·외 구직자 취업연계를 위한 '군산 주력산업 일자리 매칭데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매칭데이는 오는 27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군산에이브호텔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이날 군산지역 새만금산단 등 입주(예정) 이차전지 기업체 성일하이텍(주), 에스머티리얼즈(주), 이퍼컴텍(주), (주)에이아이테크, (주)지엠텔, 제일

폴리캠(주)과 군산지역 주력산업 기업체 (주)대우식품 등 총 13개사 직·간접 참여를 통해 직원을 채용할 계획이다.

또, 전북조선업도약센터는 면접 전 구직자의 기업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취업역량 강화를 돕기위한 취업캠프 운영(23일)으로 채용기업에 대한 설명회 및 면접교육, 인사지원서 작성 및 사진촬영도 지원할 계획이다.

채용기업 및 행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북조선업도약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채용정보(<http://www.jumpjob.or.kr>)를 참고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군산 주력산업 일자리 매칭데이'를 통해 군산지역 주력산업 기업체의 인력난 개선과 도내·외 구직자의 성공적 취업을 바란다"며 "취업캠프와 매칭데이에 참여를 희망하는 구직자는 전북조선업도약센터(군산고용복지+센터 별관 3층)로 방문하거나 워크넷, 사람인, 이메일(jumpjob@naver.com) 이력서 접수 및 전화☎ 063-450-1315~7)를 통해 사전접수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전접수자가 아니라더라도 행사 당일 이력서를 지참하여 참여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군산=김판근 기자

2023 도시혁신산업박람회 익산거점투어 추진

익산시는 오는 25~28일까지 4일간 2023 대한민국 도시혁신 산업박람회 기간 전국 시군 실무자를 대상으로 '도시재생 거점사업 투어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시는 전국 실무자들이 익산시 도시재생시례를 토대로 정보를 공유하고 의견을 나누며 도시재생사업을 더욱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마련했다.

거점 투어프로그램은 익산청년시청을 시작으로 익산시 중앙동 문화예술의거리, 음식식품교육문화원(공유주방,계화원), 중매서커뮤니티센터, 글로

벌문화관(전통의상체험) 순으로 진행된다.

청년시청은 청년들을 위한 공간으로 익산시 도시재생뉴딜거점사업 1호이며, 음식식품교육문화원은 지역을 살리고 지역경제활성화에 초점을 둔 도시재생 플랫폼이다.

중매서커뮤니티센터는 중매서시장내에서, 청년들과 시장상인들 익산시민들이 만나는 커뮤니티장소로 활용되고 있으며 익산글로벌문화관은 다문화 및 문화다양성에 맞추어 도시재생사업 일환으로 추진되어 운영 중이다.

/익산=이재춘기자

지역 소식통

군산시 '1회용품 사용 규제 확산' 본격 시행

군산시가 지속적인 1회용품 사용억제를 통해 탄소중립 군산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 제도기간이 오는 11월 23일 종료됨에 따라 오는 11월 24일부터 집단급식소와 식품접객업, 대규모점포, 체육시설 등을 대상으로 본격 확대 시행된다.

시행규칙의 주요 시행내용은 △집단급식소 및 식품접객업소(식당, 카페등)매장 내 1회용품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 사용금지, △편의점, 슈퍼마켓 등 33㎡를 초과하는 종합소매점과 제과점에서의 비닐봉투 사용금지, △대규모 점포에서의 우산비닐 사용금지 △체육시설에서는 1회용품 사용금지 등이다. 이에 따라 계도기간 이후 법률 위반 시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동안 시는 1회용품 사용금지 홍보와 현장점검을 병행 추진해 왔다. /군산=김판근 기자

군산시, 해돋이 공원 공중화장실 행안부 장관상 수상

군산시는 '제25회 아름다운 화장실 대상(大賞) 공모전'에서 해돋이 공원 공중화장실이 행정안전부장관상을 수상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행정안전부와 화장실문화시민연대가 공동 주최하는 상으로 깨끗하고 아름다운 화장실 문화를 확산하고 정착하기 위해 지난 1999년부터 매년 시행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학교 등 전국의 공중화장실이 지원한 이번 공모에는 1차 서류심사 및 2차 현장 심사 3차 최종 심사를 거쳐 군산시 선안동 해돋이 공원 공중화장실이 행정안전부장관상을 수상했다.

특히 아름다운 화장실로 선정된 해돋이 공원 공중화장실의 경우 지난 2022년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주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국민안심 그린 공중화장실로 탈바꿈했다.

/군산=김판근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고스란히 남아있는 백제 장인의 숨결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

전주매일 캠페인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은 익산 왕궁리 유적에 있는 오층석탑이다. 1965년부터 1966년에 보수를 위한 해체와 복원을 실시하였고 이때 흙 속에 묻혀 있던 돌로 만든 기단부가 발견되었다. 1층 옥개석 상면과 기단부 심초석 상면에 마련된 사리공에서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 사리장엄구 '국보 제123호'를 수습하였다. 창건에 대한 문헌 기록이 없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추정된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의 건립 연대는 백제 시대에서 통일신라, 고려 시대 초까지 논란이 다양하다. 1989년부터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을 중심으로 본격적 발굴 조사를 실시한 결과, 백제 시대에 경영되었던 궁성이 폐기되자 궁성 터에 탑·금당·강당을 남북 일직선으로 배치한 백제의 전형적인 1탑 1금당식 사찰을 지은 것으로 밝혀졌다. 본래 목탑이었던 것이 현재의 석탑으로 바뀌었고 백제 멸망 이후에도 범등을 계속 이어 갔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은 1963년 1월 21일 보물 제44호로 지정되었고, 1997년 1월 1일 국보 제289호로 승격 지정되었다가 2021년 11월 19일 문화재청 고시에 의해 문화재 지정번호가 폐지되어 국보로 재지정되었다.

**출처: 한국학중앙연구원-향토문화전자대전